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야천변 2길 6번지

탄소복합재 신뢰성센터 '문 활짝'

국내 최초 전북에 개관
센터 통해 각종 38종
공인 시험·평가 지원
국내 기준 비용 9.3% 경감
평가기간 5.4일 단축



지난 12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 개관식이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이팅을 하고 있다.

탄소 복합재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의 국제표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신뢰성 평가센터'가 도내에 전국에서 최초로 들어섰다.
이에, 탄소 소재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이병연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전무, 이영석 한국탄소나노 회장, 성도경 비니텍(주) 대표 등이 참석해 이날 센터의 개관식을 축하했다.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 전주시에서 총 1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내 부지 6,452㎡, 연면적 4,760㎡ 규모로 진흥원 신뢰성 평가동과 연구원 실증 평가동을 각각 건립하고, 46종의 시험인·검증용 장비를 구축했다.
최신식 시험용 장비 46종은 진흥원과 연구원의 기관 특성에 맞게 구축됐

다.
진흥원에는 총 21종의 장비로 항공우주, 모빌리티·해양 분야의 탄소 복합재 특성 및 부품 평가를 연구원에서는 총 25종의 장비로 장비건설·생활안전 및 레저분야의 탄소 복합재 부품 및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그간 도내에는 제품의 공인시험 및 평가·인증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없어, 센터건립의 필요성이 도내 중소기업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센터의 건립으로 도내에서 공인시험과 KS, KC, 성능인증 등이 가능해, 시험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 등 다방면에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평가·인증 비용과 기간이 큰 폭으로 단축된다.

비용 측면에서는 국내의 경우 기존보다 9.3% 경감되며, 국제인증을 위해 해외에 맡겼던 과거에 비해 건당 1,4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평가기간도 국내는 5.4일, 해외는 장장 7개월이 단축된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완제품 등 전(全)주기적 시험 평가와 인증지원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탄소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로 해소와 국내 탄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KC 285개 기업, 성능인증 118개 기업, 탄소 165개 기업 등 도내 약 578개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 구축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촉진과 소재·부품의 국제 표준개발 등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상용화와 해외 판로개척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센터 구축에 앞서 진행했던 '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등에 대한 실증·평가도 가능해져 기술개발·실증·사업화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간 도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신뢰성 센터가 완공돼 기업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탄소 복합재 신뢰성 센터가 전북도 탄소산업 발전의 창구가 되고, 대한민국 탄소산업 성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귀농귀촌인 등지 된 우수 마을 소개합니다

완주 두억·임실 발산·고창 입전 등
전북도, 우수마을 3곳 선정·홍보
유튜브·SNS 등 홍보로 유입 유도

전북도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도내 귀농귀촌 우수마을 3개소를 선정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도는 도민에게 귀농귀촌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귀농귀촌 우수마을을 발굴·홍보하는 '귀농귀촌 등지마을 홍보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그간 도 귀농인구는 전국 통계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귀촌인구는 타 시·도에 비해 광역도시가 없어 불리한 여건이다.
이에, 도는 마을단위로 귀농귀촌인을 환영하는 귀농귀촌 우수마을을 발굴·홍보해 귀농귀촌인 유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귀농귀촌 등지마을 3개소(완주 두억, 임실 발산마을, 고창 입전마을)를 선정했다.
완주 두억마을의 올해 귀농귀촌인 9가구, 18명으로, 귀농귀촌인이 중심이 돼 마을 전통놀이인 '지게장단'을 공연·계승하는 등 마을의 화합을 다지고 있다.
임실 발산마을의 올해 귀농귀촌인은 8가구, 17명이며, 마을주민들은 귀농인에게 토마토 재배기술을 전수하는 등 새 이웃의 정착을 돕고 있다.
고창 입전마을의 올해 귀농귀촌인은 18가구, 33명으로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마을 돌담을 복원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주민주도로 운영하고 있다.
도는 등지마을을 활용해 11월 중에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귀농귀촌 카페·인스타그램·SNS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등지마을 홍보사업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유입 확대에 이겨 농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국내외 MICE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전북문화관광재단 주관 'MICE 토크 콘서트' 16일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MICE 토크 콘서트(16일 전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국내 MICE 전문가를 비롯해 기관과 기업관계자 50여 명, MICE미래인제 3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MICE 토크 콘서트는 2021 전라북도 관광진흥사업(글로벌 MICE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이 행사는 ▲기조 발표(김대관 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내외 MICE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토크콘서트(국내 MICE 전문가 7인), ▲전북스마트얼라이언스 발대식, ▲교육생과 5개 관심 분야 현장실무자 멘토링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2021 전라북도관광진흥사업(글로벌 MICE 아카데미)은 전북 MICE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사업으로 도내 대학생 및 취업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인턴·취업까지 연계하는 윈윈 MICE전문가 양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교육생 중 우수교육생으로 선정된 5명은 도내 MICE 유관기관에서 1개월 동안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재단 관계자는 "전북MICE부로서, 전북 MICE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인 1기 수요생들이 현장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거전 대표이사는 "꺾을 수 없는 미래 산업이다 불리는 MICE 분야가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힘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MICE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만드는 즐거움 가득 전북'... K-글로벌 마켓 플레이스

도, 국내외 온·오프라인 개최 '전북 알리기' 열 올려
맛, 멋뿐만 아니라, 만드는 즐거움도 있는 전북을 홍보하기 위한 2021 K-글로벌 마켓 플레이스'가 김제 국립청소농생명센터와 주요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됐다.
전북도는 23개국 56명의 SNS 인플루언서, 관광 전문가 14명, 시·군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일과 13일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군, 민간업체와 협력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시·군의 구석구석을 다

국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인바운드 여행사) 등은 온라인으로 이번 행사를 시청하면서, 시·군 관광부서 담당자와 2022년 여행상품에 대한 상담회를 실시하며, 전북 알리기에 열을 올렸다.
다음날 13일에는 전북도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착한여행 릴레이 캠페인'이 열렸다. 23개국 56명의 인플루언서와 관광 전문가들이 벽골제 등 김제시 주요 관광지를 관람 후, 전통시장에서 쓰레기 줍기, 텀블러와 수건 사용하기 등을 실천하면서 친환경 여행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도는 이번 행사를 위해 시군 특산품과 캐릭터를 소재로 한 14개 시군의 '체험여행'을 발굴했으며, 영상 홍보 활동을 통해 국내외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초에는 네이버 라이브 쇼 필름을 활용한 전북 '체험여행'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될 계획이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전북은 청정한 자연 속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해 대한민국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체험 여행지다"며 "각 시군 체험부스에서 먹거리와 공예품 등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코로나 우울증도 극복하고, 행복한 여행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